

PI첨단소재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 매출액 641억 원, 영업이익 140억 원 달성 및 전분기 대비 수익성 지표 일제히 상승
- 단기 차입금 전액 조기 상환 완료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이자 비용 절감 실현
- 고부가 제품 믹스 고도화 및 FPCB·방열시트 수요 견조에 따른 실적 개선 지속 전망

<2026-04-29>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국내 폴리이미드(PI) 소재 전문 기업이자 글로벌 화학 그룹 아케마(Arkema, ISIN: FR0010313833)의 계열사인 PI첨단소재(대표이사 송금수, 178920)가 2026년 1분기 매출액 641억 원, EBITDA 227억원, 영업이익 140억 원, 순이익 1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9.6% 증가했고, EBITDA와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각각 9.5%p, 10.6%p, 9.0%p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FPCB용 매출이 기존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7.3% 증가한 33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다. 방열시트용 매출은 고성능 방열 필름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169억 원을 기록했으며, 장기 공급계약 체결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도 확보했다. 첨단산업용 매출은 전년 동기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 21.6% 증가한 141억 원을 기록하며 반도체 공정 등에서의 견조한 수요를 반영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났다. 단기차입금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에서 33%로 크게 낮아졌고, 유동비율은 227%에서 231%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회사는 추가적인 차입금 상환을 검토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PI첨단소재 관계자는 "2026년은 메모리 공급망 변동성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원부재료·물류 비용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2분기 신제품 출시로 인한 FPCB용 및 방열시트용 판매 증가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Product mix)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전략적 원부재료 구매 및 재고 관리 정책을 통해 가격 상승 영향을 일부 방어하는 한편, 저유전(Low-Dk), 고성능 방열, 플렉시블 필름 등 차세대 디바이스용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선도적 입지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필름 제품군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 및 신사업 진출 검토를 통해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질적·양적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For media inquiries:

PI첨단소재 한경완 과장

02-2181-8635

kw.han@pimaterials.com

PI첨단소재 박현아 과장

02-2181-8644

hyun7986@pimaterials.com